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우리 감각기관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느낌은 때에 따라 다르고 부정확하다. 우리 밖에 있는, 우리 보다 더 크고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디쯤 도달해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바르게 알 수 있다. 요셉은 자신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관점으로 현실을 재해석한 가장 좋은 예다.

자신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넷째 형 유다가 이제는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기를 간청하고 있었다. 막내 베냐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괜한 트집을 잡아 시므온을 억류하고, 도둑 누명을 씌워 베냐민을 곁에 두려고 했던 요셉이었다. 형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다가 보인 변화를 목격한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숨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기 시작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 창세기 45:1

형제들은 놀라서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눈 앞에서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 거듭 밝히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말한 후에야 형들은 요셉에게 말을 걸 수 있었다. 당황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 창세기 45:4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사실을 요셉이 다 잊었기 때문에(첫 아들 므낫세의 이름 뜻 처럼) 형들을 품어준 것이 아니었다. 요셉은 잊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요셉은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가 맞았다.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이 말하는 ‘애굽에 있게 된 이유’는 형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 창세기 45:5

요셉이 애굽에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 이것이 요셉이 공유한 하나님의 시각이었다. 지금 요셉은 왜 자신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는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을 아는 것이 고난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는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리고, 갇히고, 잊혀진 사람이었다. 구덩이에 떨어지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었다. 고난은 진짜였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만으로 현실을 이해했다면 형들을 만나 용서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지만 노예라는 사실, 감옥에 갇혀 잊혀진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셉이 누린 형통함의 정점은 그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것이다.